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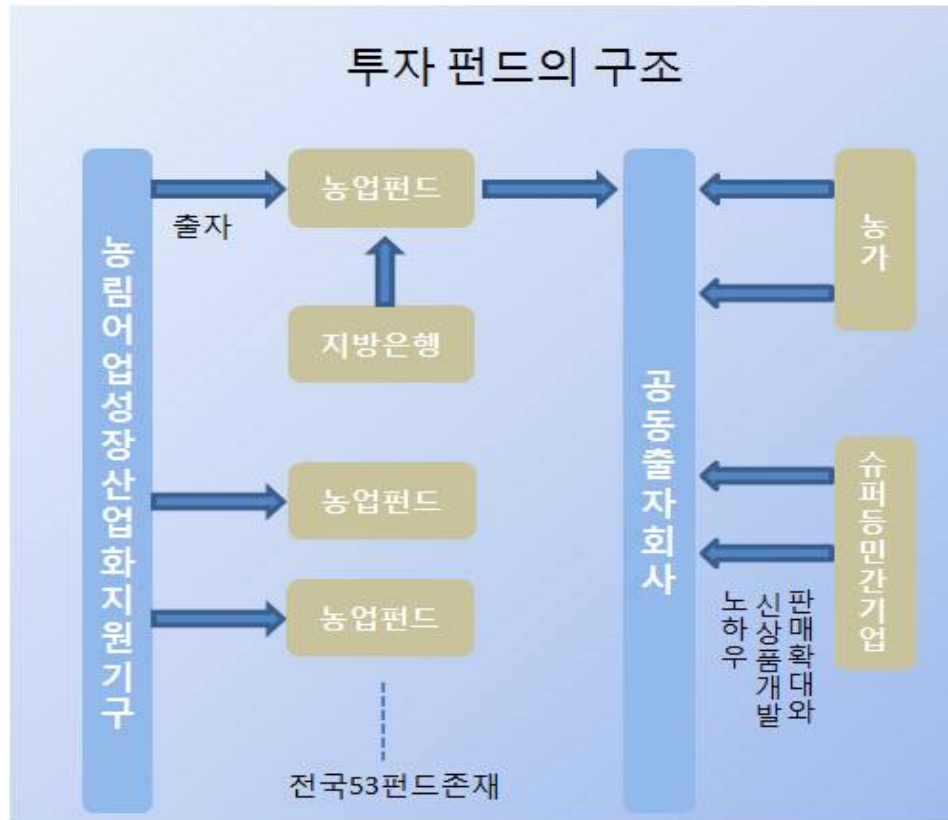
일본 농업 펀드 출자 급증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전국에서 공동으로 세운 농업펀드로부터 농가와 기업에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출자 건수는 `15년 8월 중순 현재 65건으로 1년사이 2.1배 증가했다. TPP에 대비하여 판매처 확대와 상품개발을 강화하고 싶다는 농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농가가 민간의 자금과 경영노하우를 살려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목적인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과 제도개선의 과제도 남아있다.

■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와 펀드 출자 구조

- 일본 정부는 `13년 1월에 농가의 판로 확대와 신상품의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를 설립했다.
- 정부로 부터의 출자금은 약300억엔에 달한다.
- 해당기구는 지방은행과 함께 전국에 53개의 농업펀드를 설립했다.
- 그 농업펀드, 농가, 판매 촉진을 지원하는 소매자 등 3자가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하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확대하는 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서 판매자로서의 의식과 기술을 익힌다는 구조다.



■ 출자 사례

- 니시니혼(西日本)시티은행은 `13년 9월에 농업펀드를 통한 투자를 시작했다. 경영전략으로 농업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에서 농업융자에 정통한 인재 채용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후쿠오카(福岡)현에서 닭과 계란을 이용한 외식산업의 전개를 목표로 양계농가등 해당농업펀드는 7개의 안건으로 출자했다. 현재도 10개 이상의 투자 안건이 상담중에 있다고 한다.
- 지바(千葉)현 10개 정도의 금융기관 등이 설립한 농업펀드는 분재와 식목을 구미와 남미에 판매하는 기업에 지원했다.
- 호쿠요(北陽)은행의 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돈축 가공회사의 대표는 “매출이 증감할 때 요인분석 등 조언을 받아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

■ 출자 사례

- 교섭이 지속되는 TPP가 체결되면 수출의 기회도 증가하는 한편, 값싼 수입품의 증가는 농가에 타격을 준다.
- 아베정권은 '13년 6월에 농가소득을 10년안에 배이상 증가 시킨다는 계획을 내세웠으며,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 국내외로의 판로확대와 신규사업의 진출은 불가결하다.
- 단, 농업펀드로부터 출자액은 40억엔정도로 주춤하고 있고 출자 실적이 있는 농업펀드도 전국에서 50%에 그쳤다.
- 농업관련 투자는 주로 농림중앙금고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은행의 경험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현행법의 민간 출자 비율은 농가를 밀돌도록 요구하고 있어 민간기업으로의 출자 규제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 하지만, 농가는 재무기반이 약하고 민간기업 출자 비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사업규모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는 '14년 성장 전략으로 농림어업자의 출자 비율에 대해 법개정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토론이 활발해 질 것 같다.

< 정부.민간 농업펀드에 의한 출자사례 >

	금융기관	투자처	주요 사업 내용
1	호쿠요은행	히코마돼지(북해도)	양돈업자가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독자 브랜드로 직판과 외식사업을 담당
2	아시카가은행	모타이네베(이바라키현)	산지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밤을 페이스트 등으로 가공해서 판매
3	하찌주니은행	일본와인농업연구소 (나가노현)	산지 포도.사과를 사용한 와인등을 제조 판매
4	기요은행	쇼쿠료쿠(와카야마현)	방어등 양식어를 가공.판매 및 수출
5	니시니혼시티은행	서일본(구마모토현)	생산자와 청과도매상이 연계하여, 컷트야채와 과일 제조.판매

(출처:일본경제신문)

■ 시사점

- 일본 대기업의 농업참여는 비교적 활발하다. 토요타에서 미야기현에 파프리카 최첨단 유리온실을 설립하거나 이온, 이토요카도 등이 농장을 설립하거나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 또한, TPP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농업펀드를 설립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 농업펀드의 경우 민간투자 비율등의 제한 등 제약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다소 성장에 어려움 있으나, 일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활성화가 기대된다.
- 한국에서도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설득이 필요하며, 고령화 인구 확대와 농업참여 기회 현상으로 농업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농업펀드 참여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농업의 활성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